

중국 벼멸구·흰등멸구·흑명나방 등 '비래해충' 확산

〈飛來害蟲〉

전남지역 벼 수확기 병충해 비상

방제시기 놓치면 품질저하·수량감소 우려

올해 장마전선이 남부지역에 많이 머무르면서 중국에서 날아와 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벼멸구·흰등멸구·흑명나방 등 '비래해충(飛來害蟲)'이 3년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벼 해충 중앙예찰단을 구성해 지난달 26~28일 충북 청원 등 6개도 26개 시·군·군 426필지를 대상으로 벼 비래해충 발생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벼멸구는 6.8%인 29필지에서 발생했고 이중 1.2%인 5필지는 시급한 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

다. 이는 지난해 평균 발생 필지율 0.13%와 비교해 무려 52배나 많았으며, 방제가 필요한 필지율도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총 178필지에서 발생을 보인 흰등멸구는 평균 발생 필지율이 41.8%에 달했으며, 방제가 필요한 필지율도 7.7%인 33필지로 조사됐다.

특히 방제가 필요한 필지율은 지난 6년사이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0.5%에 비해 15배가 넘게 늘어났다.

흑명나방은 289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피해율이 3.1%로

▲ 벼 비래해충=좁액을 빨아 먹거나 잎과 줄기를 깎아먹어 벼를 말라죽게 하는 무서운 해충으로, 쌀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난해 2.9%에 비해 약간 높았고, 평균 성충수는 0.3마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벼 비래해충이 발견된 지역은 전남과 경남 해안지역으로, 올해 장마전선이 남부지역에 많이 머무르면서 장마전선을 타고 유입된 비래해충이 이를 지역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된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8월 하순에 밀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비래해충의 밀도가 높은 논에서는 철저한 방제가 요구된다. 현재 전남 남부 해안지역에 벼멸구·흰등멸구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이 밖에도 포도 등 과수에 피해를 끼치는 꽃매미가 지난 6월 장성을 시작으로 담양·영광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멸구류·이삭도열병 등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를 중심 병충해 방제기간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한국쓰리엠 '어린이 사이언스 캠프'

초등생 과학영재 육성 큰 기여

한국쓰리엠이 나주를 비롯한 전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어린이 사이언스 캠프'를 개최, 국내 과학영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쓰리엠 나주공장은 지난 6~8일 2박3일 동안 동신대에서 나주 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32명과 전남지역 48명의 어린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 5회 3M 사이언스 캠프'를 개최했다.〈사진〉

'3M 사이언스캠프'는 현지 과학교사단이 이끄는 수업과 미국 3M 본사로부터 전달되는 과학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사 연구원이 직접 진행하는 '과학마법사' 교실로 구성돼 있다.

기초과학 실험과 첨단과학을 기본으로 일상 소재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결과물까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흥미롭고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돼 참여한 어린이들의 큰 흥미를 돋웠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임상훈 나주시장이 참석, 미국 3M 본사 연구원과 유창한 영어 회화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임상훈 시장이 현지인 뜻지 않은 영어 회화실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 쓰리엠 본사를 방문해 직접 투자유치를 설득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화순 유마문화광장 분수대 인기

12억들여 완공... 모후산 생태관광과 연계

화순군은 모후산 생태데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남면 남계리 유마사 주차장 입구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분수대를 설치했다.〈사진〉

유마문화광장 분수대는 모후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지친 심신을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 삶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다. 군은 12억27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6월 분수대를 착공, 1년 2개월 만에 완공했다.

또 군은 모후산 입구 내남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모후산이 고려인삼의 시원지임을 밝히는 '테라피 화순'로고와 글씨를 새겼다.

화순군 관계자는 "모후산 입구에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분수대를 설치,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낭만을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플러스부동산

**년 수익률
10% 이상책임보장
1억직접투자 시
년 1000만원이상소득기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 영업 계획 작성!
전국: 국·공유지 공매,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국방부 기타등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은 투자 가치가 없다

T.062)226-3377
FAX.226-3399
(동구·남구·중구·동구·서구·구·구)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삼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형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삼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10층 신축건물임 코너

T.881-5888 H.011-801-8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률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디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동 / 로얄층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 할인금액 6천만

■ 주변 소필드단원 / 교통여건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기자 상승 기대 최근 대림 e-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중화되었으며 철저하게 품질을 수상하였으며, 입주민들
의 친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입니다.

● 탑공인중개사 ◎ 대림124동 후문 입구
● (FAX)023-1772 원 011-602-2532
(광주광역시 서구 대림동 1772)



영호남 청소년캠프

'영호남 청소년캠프'에 참여한 고흥과 경남 창원시 학생들이 국립 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서 페트병을 이용한 로켓을 만들고 있다. 자마도시인 고흥군과 경남 창원시는 올해로 10회째 청소년 교류캠프를 갖고 있다.

〈고흥군 제공〉

농촌 들녘 생태계 되살아난다

멸종위기생물 긴꼬리투구새우·흰색깔따구 개체수 급증

전남도내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 서 멸종위기생물인 긴꼬리투구새우와 환경 생활생물인 흰색깔따구 개체수가 급증하는 등 농촌 들녘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0만 4682㏊로 전국 인증면적의 52%를 차지하면서 연간 농약 사용량은 약 287t, 화학비료는 1만8960t이 줄어 들어 수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희귀생물인 긴꼬리투구새우의 경우 올

해 광양시를 비롯한 14개 시·군 28곳의 벼 재배단지에서 발견돼 지난해보다 무려 150 이상 늘어나 사실상 도내 전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생물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990㏊(300평) 규모의 유기농 생체포장에서 2급수 자포생물인 흰색깔따구가 같은 규모의 일반생체포장보다 6.9배 많은 83마리가 서식하고, 다슬기·실지렁이·실잠자리 등 다수의 지표생물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유기농 배출 재배하는 과수원은

목토기 등 토양미소동물이 990㎡ 규모의 일반포장보다 2배 가량 많은 4종에 1020마리, 전적거미는 2.2배 많은 17종 93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함평군 대동면 월송단지 대표 오관수씨(52)는 "지난 2006년 유기인증을 받은 벼 재배단지에서는 긴꼬리투구새우를 비롯한 민물새우·소금쟁이·미꾸라지·개구리·잠자리 등 새들의 먹이가 많아지면서 백로 등 철새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깨끗한 산소 들판 마셔요"

20일부터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전국 최대 조림공원으로 손꼽히는 장성 축령산에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산소축제'가 열린다.

'숲을 향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피톤 치드·삼립육·편백톱밥길 걷기·판백우드칩 만들기·축령산 건강행진대회·숲속 한방체험 등 축령산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주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사진〉

지난해와 달리 주무대 외에 우물터 부근에 소무대를 추가로 설치해 11종의 공연행사를 비롯해 23종의 체험행사·5종의 부대행사 등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행사는 ▲피톤 치드 삼립육 ▲숲속 도로관



▲나무목걸이 만들기 ▲풀잎손수건 만들기 ▲맨손 물고기 잡기 ▲승마체험 ▲장수풍뎅이 등 곤충체험 등이 마련돼 있다.

공연행사는 전남대학교 관현악단 연주·주전국 악연·숲속 라이브 통기타 공연·인디언 민속음악 연주 등이 펼쳐진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